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양성우



내 깊은 날의 광주에는 그 어른들이 있었다. 흥남순변호사님과 조아라 여사님. 그 시절의 전남여고 정문 앞 큰 길 건너편에는 흥남교수님의 암진 걸 변호사사무실이 있었고, 금남로의 광주일보사(당시 엔 전남일보사) 뒤편에는 조아라 여사님이 회장으로 일하는 광주YWCA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도 내 눈에는 그곳의 길들과 옛집들이 손에 잡힐 듯 눈에 선하다. 그 때 나는 광주중앙여고 교사로서 학교수업이 끝나고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대개 흥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들러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광주YWCA에서 조여사님을 만나뵙는 것을 즐겼다. 아마 그래서였을까? 그 두 어른들은 마치 나를 자식처럼 대하였으며, 나 역시도 어찌면 그분들이 부모님과 같다고 여겼으니까.

그분과 교분을 가졌던 이들은 다 알다시피 흥변호사님은 성격이 워낙 후덕하신지라,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이 만나려 와도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이 없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맞아주셨으며, 은화한 말씀으로 좌중을 이끄심으로, 그분과 함께 앉은 곳이라면 모두들 쉽게 자리를 뗀 줄 모를 정도였다. 그런지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무슨 이야기인가 심상관하지 않고 한 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싶어

서 서로 무릎을 앞당기면서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거기에는 그분이 당시의 암울한 정치현실을慨叹하면서 나라 골을 염려할 적에는 너나없이 주먹을 쥐고 제 가슴을 치지 않았던가.

그럴 때면 그분은 분명히 꾀 뜨거운 젊은이들의 좌장이었으며, 부드럽고 낯

## 홍남순과 조아라

은 목소리의 선동가였고, 변방의 슬픈 지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인도자였다. 그리고 그가 이것저것 탄식을 섞어가며 풀어놓는 말씀들은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된 교과서였고 나침반이었다. 아아, 그 엄혹한 시절에 광주사회에서 어느 누가 그분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불의한 정권을 비판하고 그 하수인들을 때도하며 세상의 모순을 두려움 없이 지적할 수 있었던가. 비록 그 자리가 길거리의 군중 속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시를 읊듯이 때로는 변론을 하듯이 말하는 그분이 그곳 광주에 살아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또한 조아라 여사님은 어떻고? 비록 같은 모습은 엄하게 보일지라도 가슴은 비단결

같이 곱던 그 어른, 어느 때는 자상한 시골 할머니처럼 나에게 이것저것을 잘챙겨 주시다가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일라치면 호되게 나무라시던 그분. 세상과는 활부로 타협하지 않고 당찬 가슴으로 올곧은 생각과 일을 밀어붙이는 그분의 광주YWCA는 언제나 새롭고 활기가 넘쳐났다. 따라서 광주시내의 청년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늘 다양하게 준비되었으며, 그런 이유로 젊은 남성들도 그곳에서 빈번하게 조여사님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 즈음에 나역시도 조여사님의 뜻으로 그곳에 자주 나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으므로,

이었다. 그분들은 시종일관 시대의 아픔과 함께 있었으며, 고난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며, 희망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 혐악한 시대에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시를 쓰는 일에 미친 나마저도 개처럼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을 때, 불운천리하고 서울의 재판에까지 오르내리던 흥변호사님의 모습과 함께, 나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눈물의 기도를 그치지 않으신 조여사님의 성원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여기에서 내가 두 어른의 빛나는 공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하지 않았지만 굳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5월 광주의 비극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분들의 놀라운 혁신이 아닐는지. 이미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든 고령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며뭇거리지 않고 무도한 총칼 앞에 맨몸으로 나선 그분들의 혁신이 고귀한 젊은 혁생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오늘의 광주는 더욱 거룩한 역사의 도시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던가.

생각하면 너무도 슬픈 일지만, 젊은 날 한 시절에 내가 섬긴 두 어른은 진작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추억 따위는 훌쩍 뛰어넘어 그분들의 아름다운 이름과 영혼은 그곳 광주의 우뚝한 상징이 되었다. 흰 눈이 쌓이면 더욱 친란하고 신비로운 무등산 봉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인·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본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기고

송광운



조선시대 지방행정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도를 관할하는 관찰사 밖에 부, 목, 군, 현을 두었는데 책임자를 통칭 목민관이라 불렀다. 이들 목민관의 주된 임무는 세금과 군인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선후기 목민관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행정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교훈서다.

목민심서는 조선후기 정치상황과 민

을 구조, 주민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 타자치단체와 확실하게 차별화를 보였다. 또 애민부문에서는 북구 장학회 설립, 북구 평생학습·교육경비 보조조례제정을 통해 꾸준하게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교육환경 체계를 개선해온 것이 인정을 받았다. 다산의 애민은 말의 나열이 아니라 실천에 있었으며 그에게는 항상 관이나 공보다 민을 우선하는 민본사상이 철저했다.

북구의 이번 대상 수상은 공직자들의

## 기고

박환태



오늘 지상에는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위기론이 회자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광주·전남의 위기론 즉 호남의 위기론은 사실상 광주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 광주는 전남의 중심으로 광주·전남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며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호남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사람들은 왜 위기를 느끼는 것일까? 첫째,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이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이 내걸었던 수출목표였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이해해 될 것이다.

더욱이 2015 세계 계약 U대회 유치를 해낸으로서 명실상부한 국제화 도시의 길을 가게 됐다. 향후 세계는 국가 단위보다 도시가 중심이 되는 국제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따라서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가 도시 간에 치열한

## 다산의 정신 되새기며

생문제, 사회현상이 날날이 기록돼 사회경제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목민심서의 3권에 정약용선생의 사상과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이 모두 축축돼 있으며 오늘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대를 일깨운 거인의 행적이 새롭게 다가온다.

'다산목민대상'은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경제가며 개혁정신과 인간사랑 정신, 실사구시 철학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 보다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에서 2008년부터 다산연구소와 행정안전부가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한다. 우리 북구는 자랑스럽게 제2회 대상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제1회는 대상 수상자 치단체가 없어 북구가 사상상 첫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

북구는 윤기부문에서 공직자 청렴 의식 고취와 부패 없는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광주시 최초로 부패방지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이 다산이 강조하고자 했던 공직윤리실천노력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봉공부문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스스로 행정을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나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운영 같은 주민주도형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노력도 컸지만 무엇보다 48만 주민이 행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보답이다. 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앞서가는 의식이 없었다면 이런 큰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48만 주민이 수상의 주인공이며 서 북구에 또 하나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만들었다. 다산목민대상이 다른 상보다 크게 보이고 더 영광스런 이유가 바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상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노벨상은 개인의 영광은 물론 이 minden 국가의 자랑이기도 한다. 다산목민대상 역시 엄정한 심사와 투명성을 통해 선정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함께 이상을 만든 수상이어서 노벨상의 수상 못지않은 영광과 자부심을 느낀다.

북구는 지난 4년간 중앙부터나 상급단체, 언론사, 민간단체로부터 모두 175회의 수상실적을 올렸으나 2010년 새해 벽두에 전해져온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의 수상이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 보람되고 흥분된다. 어느 상이든 소중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번 수상은 더욱 특별하다. 그래서 48만 북구주민들이 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북구청장〉

##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

서기 이후 매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다. 둘째는 현 절부가 제공하고 있다. 다른 아닌 세종시의 수장안에 따른 이 지역이 입을 상대적 손실과 중앙 부처 내의 지역인사塌害, 원활치 못한 예산 지원 문제 등이다. 셋째, 경제 문제로 건설·조선업이 힘을 잃고 그 중심은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 마지막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다. 넷째는 실망스런 지역 정치인의 행동이다. 정치인들은 지역 문제 해결에 고민하고 중앙에 의견제시 등 발전에 앞장서기는커녕 출발이 시장을 출마를 선언함으로서 선거시즌으로 몰아넣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조기 선거분위기 조성은 시간 낭비와 서로 헐뜯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냈으므로 전진보다 뒤보기의 길로 재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랜 기간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소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2007년 수출10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서 생 산도시로 꼬리표를 바꿔달았다. 100억 달러 수출규모는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경쟁을 벌이는 도시 중심 시대에 광주광역시는 화순, 담양, 장성, 나주를 포함하는 그랜드 도시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도시의 고삐를 늦춰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호남위기 시대의 대처와 광주가 더 크고 잘사는 미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2010년 6월 2일 치러지는 시장선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시장 인물론이 대두된다.

첫째, 지역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종리이상의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야 주눅 들지 않고 배짱 있게 총리, 대통령과 맞상대 할 수 있다. 둘째는 시장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진의 정치인으로서 여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겸손된 인물이어야 한다. 많은 행정경험과 추진력과 철학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우리시민들의 선택은 중요한 선택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령포럼대표〉

## 40대 95%가 면역력 없어…파상풍 예방접종 서둘러야

파상풍은 아와에서 작업 중 상처가 나거나 금속에 찔릴 경우 생기기 쉬운 질병이다. 만약 상처를 통해 파상풍에 감염됐을 경우 세균에서 분비하는 신경독소가 들어가 근육이 미비되는데 물조차 삼키기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호흡 근육이 마비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한다.

대부분 어릴 적에 예방접종을 하지만, 면역력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보면 95% 이상이 파상풍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그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파상풍은 앓고 지나가도 항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성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 보건 차원에서도 정부가 이런 걸 더 홍보하고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남준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 시설

## 11년 새 두배나 악화된 지역소득 불균형

지역 간 소득불균형이 외환위기 이후 11년 새 두 배로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악화되며 커녕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지역 균형발전' 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유의미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의 '지역경제 첨체와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DP)의 지니계수는 지난 19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역 간 소득 불평등이 11년 만에 두 배나 심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음부도율은 수도권이 2004년 0.14%에서 2008년 0.12%로 낮아졌지만 비수도권은 0.49%에서 0.64%로 높아졌다. 은행 점포수 역시 수도권은 1997년 3천413개에서 2008년 3

개념이 평가항목 수도 대학마다 판이해 학교에 간 편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다. 대학마다 10개월 가까이 대학자체평가는 준비를 해 왔다. 자료 준비를 위해 각 대학들이 쓴 인력과 예산 만 낭비한 셈이다. 정직하게 평가한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학과만 평가하고 불리한 학과는 누락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공개한 대학 경쟁력 8개 지표(총원율·교원확보율·취업률·교원논문실적·중도탈락률 등) 중 일부 항목을 누락시켜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를 부풀리기까지

## 無等鼓

직자는 전체의 21.5%에 달했고 30대는 32.9%, 30세 미만 퇴직자도 25.1%나 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 급증하는데다 직장 이동이 찾아진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하지만 평생직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구인구출 폼페이의 암반들이 대학생 893명을 대상으로 '2010년 가장 희망하는 뉴스'를 조사한 결과 '평생직장 체제 돌입'은 '등록금 인하' 등과 함께 상위권에 올랐다.

잡노마드족의 공동점은 '사회 부적응'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로 밀려나 경직된 노동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들이 월선 더 많다.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벗어나 평생직업을 경영하라고 노력한다. 퇴로 없는 상시 명퇴시대,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자계발 교육과 취업 알선, 창업 유도 등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다.

에 가장 원성하게 일할 나이인 40대 되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제신문·배달연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경